

List of articles about Eco-mileage program

※ Articles in the below list include the original articles and English translations.

No.	Date	Media	Title
1	2012. 7. 17	Chosun Ilbo	Save water and gas, accumulate Eco-miles and pay less for maintenance bill
2	2012. 7. 16	Naeil News	Apartment Maintenance Payment with Eco-miles
3	2012. 7. 16	Munwha Ilbo	“Pay apartment maintenance bill with your Eco-miles”
4	2011. 2. 28	JoongAng Ilbo	Cut 100,000 won in gas bill... Neighbors are amazed
5	2011. 1. 18	Chosun Ilbo	Seoul issues Eco-mileage card
6	2011. 1. 18	Dong-a Ilbo	Save energy, use like cash
7	2011. 1. 18	Segye Ilbo	Save energy and earn Eco-miles
8	2010. 11. 2	JoongAng Ilbo	340,000 households and companies join the energy saving movement
9	2010. 1. 19	Worldyannews	A small step toward a greener world, Eco Mileage
10	2009. 9. 12	Kookmin Ilbo	Eco-mileage program to be expanded nationwide
11	2009. 9. 11	The Korea Times	Seoul offers more incentives for less CO ₂
12	2009. 9. 11	Kookmin Ilbo	“Save energy and get rewards”
13	2009. 9. 11	Seoul Shinmun	Save electricity, water or gas and get incentives like tree voucher

1. Pay Apartment Maintenance Bill with Your Eco-miles

July 16, 2012, Monday Munwha Ilbo (012p Local Section)

문화일보

2012년 07월 16일 월요일 012면 서울

“에코마일리지로 아파트관리비 내세요”

에너지 절약자 인센티브 지급
서울시, 9월부터 제도 도입

■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면 받게 되는 '에코마일리지'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관리비 고지업체와 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오는 9월부터 신청자에 한해 에코마일리지를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로 관리비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6개월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에코마일리지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관리



비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비 고지업체는 이들 회원에게 차감된 관리비를 고지하게 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 일반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2만9000여 개

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주민이 서울 전체 가구수의 40%(144만 가구), 444만 명을 차지하고 있고, 가입된 에코마일리지 회원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21만 가구, 26만 명(2012년 6월말 기준)에 이르며 전산정보기술의 발달로 관리비 자동차감 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제품,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 마일리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쌓이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Incentives for energy-savers; system to be introduced in September by Seoul city

(English Translation) From now on, apartment residents in Seoul will be able to pay their apartment maintenance bill with the Eco-miles they accumulate by saving energ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lared on the 16th that it partners with a billing company to deduct the Eco-miles automatically from the maintenance bill when the concerned resident wants it that way, starting this September.

To pay their maintenance bill with the Eco-miles, members first have to save energy by over 10% to get incentives. Eligible members can sign up on line at the Eco-mileage website and make application for the automatic deduction, and the billing company will issue the maintenance bill after deduction. The Eco-mileage is a program to engage citizens in energy saving actions by giving them incentives when they save electricity, water, gas and district heating at home or office. Up to now, some 29,000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y allowed developing and operating of such a system for more than 4 million citizens. The number of apartment residents amounts to 4.44 million from 1.44 million households, 40% of the total households of Seoul. Among the Eco-mileage members, 260,000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210,000 households) live in apartment as of June 2012. The members can also buy green products, go shopping in local markets, recharge mass transit card and accumulate partner credit card points with the Eco-miles.

A city official said “we from Seoul expect that the new service to allow members to pay the maintenance bill with the Eco-miles will further encourage citizens to voluntarily join the Eco-mileage program and save energy.”

2. Apartment Maintenance Payment with Eco-miles

July 16, 2012, Monday Naeil News (005p Local Administration Section)

내일신문

2012년 07월 16일 월요일
005면 자치행정

에코마일리지로 아파트관리비 납부

서울시, 9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시행

에너지를 절약하면 받게 되는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가 아파트 관리비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에코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자동 차감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말까지 관리비 고지업체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에코마일리지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면 우선 6개월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에코마일리지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관리비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비 고지업체는 이들 회원에게 차감된 관리비를 고지하게 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 일반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2만90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 경제품,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인 경우)에 사용돼 왔다.

관리비 차감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해 제공한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센티브 수령회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인 144만가구(444만명)에 달한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과장은 "이번에 에코마일리지 사용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로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더욱 많은 시민이 에코마일리지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In Seoul city to introduce the system in September for subscribers only

(English Translation) The usage of Eco-Miles has been now expended to include paying apartment maintenance fe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lared on the 16th that it introduces a service system in September to deduct the Eco-miles automatically from the maintenance bill.

The city is planning to build a transaction system with the billing company by end-August and launch the system in full scale by September.

To pay their maintenance bill with the Eco-miles, members first have to save energy by over 10% in order to get incentives. Eligible members can sign up on line at the Eco-mileage website and make application for the automatic deduction, and the billing company will issue the maintenance bill after deduction.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The Eco-mileage is a program to engage citizens in energy saving actions by incentivizing the actions of saving electricity, water, gas and district heating at home or other buildings. Up to now, some 29,000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Eco-miles has allowed the members to buy green products, go shopping in local markets, recharge mass transit card or accumulate partner credit card points (for card holders only).

In Seoul, as much as 1.44 million households (40% of the total) or 4.44 million citizens reside in apartments.

Hyonsik Kim, Director for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 management of Seoul, says “we from Seoul expect that the new service to allow members to pay the maintenance bill with the Eco-miles will further encourage citizens to join the program.”

3. Save water and gas, accumulate Eco-miles and pay less for maintenance bill

July 17, 2012, Tuesday Chosun Ilbo (005p Local Administration Section)

朝鮮日報

2012년 07월 17일 화요일 A14면 사회

수도·도시가스 아껴 에코마일리지 쌓아 관리비 부담 덜어요

9월부터 신청만 하면
공동주택 관리비서 자동 차감

에너지를 절약하면 받는 '에코마일리지'로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관리비 고지업

체와 에코마일리지 전산시스템을 연계, 오는 9월부터 신청만 하면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에코마일리지만큼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란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에코마일리지 사이트(ecomileage.seoul.go.kr)에 들어가 회원에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쓴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 10% 이상 절감하면 인센티브로 5만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 5만마일을 그동안 친환경 제품을 사거나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5만마일이 5만원 가치를 지닌다.

관리비 고지업체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시스템은 서울시 소재 공동주택의 90%(139만 가구)에서 채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은 54만가구, 2만9000여개 단체에 달한다. 이위재 기자

From September, simple subscription is enough to have Eco-miles deducted automatically from apartment maintenance bill

(English Translation) The Eco-Miles that citizens can receive when saving energy can now also pay the apartment maintenance bil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lared on the 16th that it partnered with a billing company to connect the billing system to the Eco-mileage system, so that from September the Eco-miles will be deducted automatically from the maintenance bill for any members who want it that way.

The Eco-mileage is a program to incentivize the actions of saving electricity, water, gas and district heating at home or other buildings. Citizens can sign up on line at the Eco-mileage website (ecomileage.seoul.go.kr). If they save electricity, water, gas and district heating by over 10% compared to the last six-month period, 50,000 Eco-miles are given.

Up until now, the Eco-miles could be used when the members buy green products, go shopping in local markets or recharge mass transit card. The new service means the usage of Eco-miles will be expanded to include maintenance bill payment. 50,000 Eco-miles are actually worth KRW 50,000.

The city of Seoul says that Aegis Enterprise Co. Ltd., a billing company which they partnered with, covers 90% of apartments in the city (1.39 million households), allowing many residents will benefit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from the new service. The Eco-mileage program has now 540,000 household members as well as 29,000 organization members.

4. Cut 100,000 won in gas bill... Neighbors are amazed

February 28, 2011, Monday JoongAng Ilbo (024p National Section)

중앙일보

2011년 02월 28일 월요일 024면 사회

가스비 10만원 줄어 ... 옆집이 깜짝

에코 마일리지로 지구 살리고, 돈도 벌고



사용 에너지, 사이트서 계산

줄여야 할 곳 한눈에 보여

마일리지로 친환경 제품 구입

세금 납부, 문화시설 할인도

고광숙(38·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씨는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2월 도시가스 요금청구서에 속이 찡찡했던 기억이 있다. 액수가 많았던 탓이다. '대낮에도 이불을 깔고, 가족들한테 실내에서도 내복과 외투까지 걸치며 하면서 아꼈는데...' 1월 내내 이어졌던 이상 한파와 앞선 장사가 없는 듯했다.

며칠 뒤 옆집 아주머니가 놀러왔다. 그 집도 똑같은 네 식구였다. 낯두리가 하고 싶어졌다. "가스요금 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청구서를 보여주자 옆집 아주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우리 집보다 10만원은 덜 나왔는데?"

고씨는 그 일만 생각하면 피식 웃

음이 나온다. "남들도 다 우리같이 사는 줄 알았죠." 고씨는 '에코 마일리지'다. 서울시가 2009년 시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에코 마일리지'의 3년차 회원이다. 특히 대기전력을 아껴 똑똑히 재미를 봤다. 제때 근무 때문에 집에 컴퓨터만 3대였던 고씨는 평소 전원을 잘 끄지 않았다. '이 짜릿 게 얼마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회원 가입 후 전원 끄기를 생활화했다. 이렇게 한 달간 아낀 전기비가 전년 평균 대비 37% 줄었다. 200W짜리 에어컨을 6시간씩 30일간 켜놓을 때 소비되는 전력량이었다. 전기요금으로 4만원 정도 됐다.

이미지(45·서울 강북구 수유동)씨가 에코 마일리지를 접한 건 3년 전 초등학교(12) 딸아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에서였다. '에너지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호기심에 클릭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다. '우리 집 에코방'이란 코너가 눈길을 끌었다. 집 안에서 쓰는 하루 동안의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를 간단하게 탄소배출량(kg)으로 환산해줬다.

이제는 달력에 그날그날 에너지 사용량을 빼곡히 기록했다. "태일이 어떻게 하니 에너지 사용량 변화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10을 썼으면 오늘은 7만 원짜지, 이런 식으로 오기가 생겼죠." 그리길 서

달려,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전기 292kWh, 도시가스 199.5㎥, 수도 13㎥ 등 종전 사용량의 31%나 줄었다. 탄소배출량으로 683kg이었다.

'에코 마일리지'엔 또 다른 보상'이 따라온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송현정(29·서울 관악구 대학동)씨는 마일리지로 최근 전력 소모가 많은 LED 조명등을 구입했다. 서울시는 최근 카드사와 손잡고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카드도 선보였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병세, 이동통신요금 납부는 물론 각종 문화시설(세종문화회관, 한강유람선 등)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원보 기자

wonboby@joongang.co.kr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이미지씨가 27일 서울 강북구 번3동 자신의 미용실에서 손님이 잠시 없는 사이 전등을 끄고 있다. 조문규 기자

◆에코 마일리지=개인 또는 단체가 쓴 에너지 사용량(전기·수도·도시가스·수도)을 최근 2년과 비교해 6개월간 평균 10% 이상 절감하면 친환경 상품 등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go.kr)에서 회원 가입하면 된다. 현재 38만여 명이 회원으로, 서울시내 816개 초·중·고교도 가입했다. 그동안 9만200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Save the Earth, save money with the Eco-mileage program

Eco-mileage website calculates the energy consumption – Check your energy use

Buy eco-friendly products, pay taxes and enjoy discounts on cultural facilities with the Eco-miles

(English Translation) Ms. Goh Gwangsook (38, Yeonhee-dong, Seodaemun-gu, Seoul) remembers how upset she was when she received the February gas bill. 'I tried my best to save the energy. I even covered my floor with blankets during the daytime and made my family wear long johns and light jackets at home.' Extreme cold weather in January seems to be the cause of the high gas bill. A few days later, a neighbor visited Ms. Goh's house. Ms. Goh complained about how high her gas bill was this month, and showed her bill to the neighbor. When the neighbor saw it, she was extremely surprised. "Your bill is 100,000 won less than my bill!" This conversation still makes Ms. Goh smile when she recalls it. "I thought everyone else lived like our family." Ms. Goh is a member of the Eco-mileage program.

In 2009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Eco-mileage program to save energy, and Ms. Goh has been a member for three years. Since joining the program, Ms. Goh has saved significant amount of energy by turning off standby power. As she works at home, she had 3 computers, which she didn't turn the power off. She used to think that it was not a big deal. After she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joined the program, Ms. Goh started to turn the computer off, and she saved 377kwh a month compared to the average energy use over the last year. The amount of electricity that Ms. Goh saved is same as using 200W heating pad for 6 hours every day for 30 days, and is worth about 40,000 won on the electricity bill.

Ms. Lee Mija (45, Suyu-dong, Gangbuk-gu, Seoul) first heard about the Eco-mileage program three years ago at a newsletter that her daughter brought from the school. On the newsletter, it said "If you save energy, you will enjoy incentives." Out of curiosity Ms. Lee joined the Eco-mileage program at the website, and became interested in "My Eco-Room" category at the website, which calculates the members' energy (electricity, water, gas) consumption every day. Ms. Lee started marking her daily energy use on her calendar. "I can check how much energy I was using if I mark my daily use. This makes me to challenge myself to use less energy than the day before." Surprisingly, in three months, she reduced 292.5kwh of electricity, 199.5m³ of gas and 13m³ of water. She was able to reduce the energy use by 31.58%, which is equivalent to cutting 683kg of CO₂ emissions.

There is additional incentive for being an Eco-mileage member.

Eco-mileage members can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with the earned Eco-miles. Ms. Song Hyunjeong (29, Daehak-dong, Gwanak-gu, Seoul) bought an energy-efficient LED light with her Eco-mil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now working in partnership with credit card companies to issue Eco-mileage card, which provides Eco-miles that can be used like cash. The cardholders can use earned Eco-miles to pay for local taxes and cell phone bills. The card also provides discount benefits on cultural facilities such as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N Seoul Tower or taking a ride on a Han River cruise.

** The Eco-mileage program is an environment-friendly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which gives incentives such as green products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 saved over 10% of electricity, water or gas for 6 months compared to the average use over the last two years. For those who wish to join can visit the Eco-mileage website (ecomileage.go.kr) to register for the program. More than 380,000 have joined the program to date including 816 schools and reduced 92,000 t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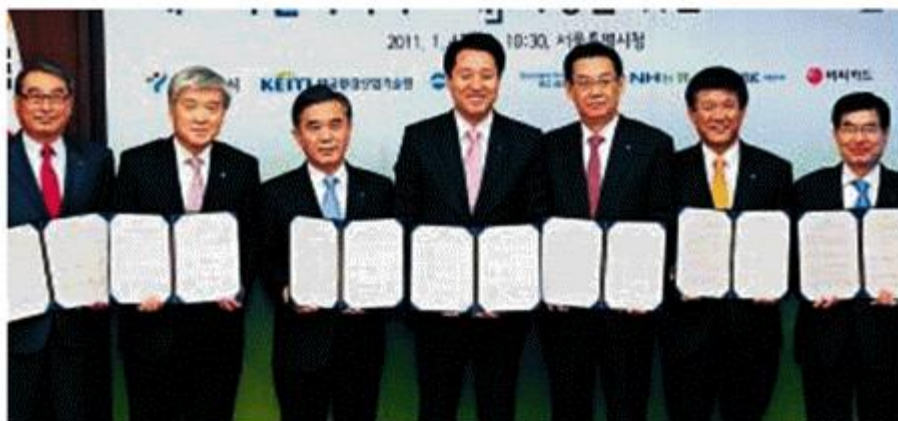
Photo: Ms. Lee Mija who lives in Suyu 1-dong, Gangbuk, Seoul is switching off the light of her beauty salon when there are no customers.

5. Seoul issues Eco-mileage card

January 18, 2011, Tuesday Chosun Ilbo (B04p Business Section)

朝鮮日報

2011년 01월 18일 화요일
B04면 경제종합



비씨카드 제공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 비씨카드는 17일 서울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시·서울환경산업기술원·우리은행·SC제일은행·농협·IBK기업은행과 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 협약식을 가졌다. 에코마일리지 카드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서울 시민에게 '에코머니'를 적립해주는 카드다. 이 카드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발급받을 수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가스 등을 전달보다 10% 이상 절감하거나, 제휴 가맹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에코머니는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형덕 비씨카드 사장, 박홍태 SC제일은행 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 조준희 기업은행장, 김상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English Translation) On January 17, 2011, BC Card held a signing ceremony to launch the Eco-mileage card system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Woori Bank, SC First Bank, NH Nonghyup and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in Seoul City Hall Seosomun Annex. The Eco-mileage card is a type of credit card which enables cardholders who are committe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to earn 'Eco-miles'. Every Seoul citizen is eligible to receive the card after registering for the program at the Eco-mileage website (<http://ecomileage.seoul.go.kr>). Cardholders can earn Eco-miles by saving more than 10% of their electricity or gas us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to protect the environment, or by using the card at participating stores. The accumulated Eco-miles can be used like cash at stores in partnership with the program.

Photo (from left to right) - Jang Hyeongduk, CEO of BC Card; Park Hongtae, Vice President of SC First Bank; Lee Jonghwi, President of Woori Bank; Oh Sehoon, Mayor of Seoul; Kim Taeyoung, President of Nonghyup; Cho Junhee, President of IBK; and Kim Sangil, President of KEITI.

6. Save energy, use like cash

January 18, 2011, Tuesday Dong-a Ilbo (A16p National Section)

東亞日報

2011년 01월 18일 화요일 A16면 사회

에너지 아껴 현금처럼 쓰세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카드'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에코마일리지'. 앞으로는 에코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자신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 카드에서 마일리지당 1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리은행을 비롯해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BC카드 등 금융회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는 해당 은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을 발급받아 평소 적립한 마일



서울시가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 BC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에코마일리지카드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종휘 우리은행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영 NH농협 신용 대표(왼쪽부터). 사진 제공 서울시

리지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지난해 9월

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6개월에 한 번씩 그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개인뿐 아니라 현재 시내 35만 가구와 1110개 학교, 2473개 공공기관, 1201개 아파트단지에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1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도 생겼다.

서울시는 하반기(7~12월)에 하나SK카드, 씨티은행과도 제휴를 하겠다고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제휴 은행 또는 카드사를 방문하면 된다.

김병석 기자 bsism@donga.co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co-mileage card'

(English Translation) If you save energy consumption such as electricity, water and gas, you will earn Eco-miles. This is what 'Eco-mileage' program is. Now, participants are able to use the earned Eco-miles like cas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on January 17th that Eco-mileage participants who holds Eco-mileage card can convert 1 Eco-mile into 1 Korean won for use. For this benefi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gned an MOU with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and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Woori Bank, SC First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NH Nonghyup and BC Card. Eco-mileage program participants can get a credit card, debit or membership card at participating banks and use accumulated Eco-miles like cas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Eco-mileage program in September 2009. Participants will receive Eco-miles for saving electricity, water and gas use, which will be converted into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n every 6 months. For every reduction of 10g of CO₂, one Eco-mile will be credited. Individuals as well as 350,000 households, 1,110 schools, 2,473 public institutions and 1,201 apartment complexes have joined the program to date. Another way to earn Eco-mile is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subways or buses as the system was introduced recently to give Eco-miles worth of 100 won for each trip by mass transport.

Seoul plans build a partnership with the Hana SK Card and Citi Bank in the latter half of the year. Citizens can visit a participating bank or a credit card company to receive an Eco-mileage card.

7. Save energy and earn Eco-miles

January 18, 2011, Tuesday Segye Ilbo (011p Local Section)

세계일보

2011년 01월 18일 화요일 011면 지방종합

에너지 아낀만큼 카드 마일리지 받는다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확대... 최대 10만포인트

아파트 관리비·이동통신요금 등으로 사용 가능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해 받은 '에코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7일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BC카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제휴 카드사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평소 적립한 마일리지들을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2009년 도입한 '에코 마일리지' 제

도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인과 단체에 친환경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온실가스 감축 정도는 최근 2년간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에코마일리지 신청 후 사용량을 비교해 측정된다.

현재까지 서울시내 35만가구와 1110개 학교, 2473개 공공기관, 1201개 아파트단지, 2만728개 사업장 등 37만5000곳이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마일리지에 따라

친환경 제품으로만 지급받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적립된 마일리지로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요금,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세종문화회관과 향강유원선, N서울타워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전기와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절감 실적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제품 구입 실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지급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회당 100마일리지, 월 최대 1만 마일리지(연간 12만 마일리지)까지 지급한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는 가맹점별로 판매액의 1~5%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1마일리지당 1원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회원 가입을 한 뒤 가까운 제휴 은행 또는 카드사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올 하반기 중 하나은행, 씨티은행과도 제휴를 맺는 등 에코마일리지 카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카드' 제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모델로서, 환경부에서도 우수 시책으로 인정해 향후 전국 지자체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Seoul plans to expand 'Eco-mileage' program – Up to 100,000 Eco-miles

Accumulated miles can be used to pay for apartment maintenance fee and mobile phone bill

(English Translation) The Eco-mileage card system was introduced in Seoul. The card system offers Eco-miles to cardholders who saved electricity, water or gas, and enables them to use the earned miles like cash.

On January 17,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gned an agreement with Woori Bank, SC First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NH Nonghyup, BC Card and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to launch the Eco-mileage card system. Under the newly introduced system, the Eco-mileage cardholders can get a credit card or a debit card and use the already earned Eco-miles freely at wherever they would like to us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Eco-mileage program in 2009, which gives eco-friendly incentives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 reduced greenhouse gases by saving energy (electricity, water, gas).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s measured by comparing the average monthly energy use over the past two years with the energy use after joining the program.

To date, around 375,000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350,000 households, 1,110 schools, 2,473 public institutions, 1,201 apartment complexes and 20,728 companies have joined the program.

A city official said "The Eco-mileage members used to receive eco-friendly products as incentives based on the Eco-miles they have earned. Now they can use the earned miles to pay for apartment maintenance fees, local taxes or mobile phone bills." In addition, Eco-mileage cardholders will receive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discounts when they use cultural facilities such as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N Seoul Tower or when they ride a Han River cruise ship.

The city government also plans to extend the Eco-mile earning activity to cover not only energy saving achievements including electricity, water or gas reduction, but also activities such as purchasing eco-friendly products or using public transporta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provide up to 100,000 Eco-miles a year if an Eco-mileage member saves electricity, water or gas, and 100 Eco-miles for each trip using public transportation, with a maximum limit of 10,000 miles a month (120,000 points a year). Eco-mileage cardholders will be able to earn 1-5% of the cost of an eco-friendly product they purchased in Eco-miles. The accumulated Eco-mile can be used like cash with one mile worth of 1 Korean won. Citizens can receive an Eco-mileage card by joining the Eco-mileage program website (ecomileage.seoul.go.kr) and then visiting a participating bank or a credit card compan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lans to expand its partnership and join hands with additional card companies such as Hana SK Card and CitiBank in the latter half of this year.

According to the city govern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gnized the Eco-mileage card system, the first of its kind, as one of the best sustainable environment-friendly business models which can be replicat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country.

8. 340,000 households and companies join the energy saving movement

November 2, 2010, Tuesday JoongAng Ilbo (020p National Section)

중앙일보

2010년 11월 02일 화요일 020면 사회

“에너지 절약운동에 34만여 가정·기업 참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시행 1년



서울 수유동에 사는 주부 이미자(43)씨 집 거실 벽면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힌 달력이 걸려 있다. ‘에코마일리지 달력’이다. 이씨의 세 아이가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전기·가스 사용량을 기록한다. 이씨는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아 에너지 사용량 기록을 맡겼다”고 했다.

아이들의 생활습관도 달라져 이제 빈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경계하듯 달려가 불을 끈다. 중학교 1학년인 큰딸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투명용기에 넣어 빨리 찾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씨 가족은 7월 에코마일리지 우수 가정으로 뽑혀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1년여 만에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상가·학교에서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참가자들은 1년에 두 차례

“환경교육 효과 커” 입소문 타고

초·중·고 1317개 중 816곳 가입

포인트로 LED 램프, 멀티탭 등 친환경제품이나 묘목을 살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34만2427개의 가정·기업·학교가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9만2000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환경교육까지 할 수 있다는 입소문에 서울시내 1317개의 초·중·고교 중 816곳(62%)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했다.

서초4동의 서일중은 3월부터 반마다 ‘녹색생활지킴이’를 정해 교실·복도에 있는 전등이 제대로 꺼졌는지 점검하고, 에너지를 아껴 쓰도록 친구들에게 홍보한다. ‘환경탐사반’을 만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잔반 줄이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에너지 절약정신은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탐동초등학교 6학년 송혜진(12)양은 학교에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듣고, 집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펼쳤다. 송양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시큰둥했지만 수도·전기·가스비가 지난달에 비해 1만3650원 줄어든 것을 보고 이제는 함께 참여하고 있다”며 웃었다.

에코마일리지 시행 1주년을 맞아 1일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녹색생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One year sin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Eco-mileage program

(English Translation) In Ms. Lee Mija's (43, Suyu-dong, Seoul) living room, there is a special wall calendar with numbers on it. It is the 'Eco-mileage calendar'. Since November last year, Ms. Lee's children have recorded their family's daily electricity and gas use on the calendar. Ms. Lee said "It would sound like I am nagging them if I tell them to save energy, so I asked them to mark the energy use."

This changed her children's habits as well. Now, when they find an empty room with lights on, they race to the room to turn them off. Ms. Lee's oldest daughter has suggested keeping the food in a transparent container to make it easier to find what they are looking for. Last July, Ms. Lee's family was selected as one of the best energy saving households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ceived an award from the Mayor of Seoul.

The Eco-mileage program, launched in September last year, is permeating into the daily lives of the citizens. The Eco-mileage is a program that gives Eco-miles to the participating households, stores and schools for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by saving electricity, water or gas. Twice a year, participants can buy eco-friendly products such as LED lamps or multi-outlet power strips with earned Eco-miles.

To date, 342,427 members including households, companies and schools within Seoul have joined the program and they have reduced 92,000 ton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the program

became known for its educational effects, 816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ut of total 1,317 schools in Seoul have joined the program.

Seoil Middle School, located in Seocho 4-dong, appointed a 'green action manager' in each class in March to check whether the lights in empty classrooms or hallway are out. The 'green action managers' also encourage other students to save energy. The school also established an 'Environment exploration team' to hold campaigns on separating garbage and reducing leftover food.

Students' energy saving habits at schools continues at their homes. Song Hyejin, a 6th grader in Tapdong Elementary School, learned about the Eco-mileage program at school and encouraged her family to join energy saving movement. Song said "My family showed no interest at first. But after seeing that the utility bill has reduced by 13,650 won compared to the last month, they are now actively participating in energy saving."

To celebrate the first anniversary of launching the Eco-mileage program, the city government held 'Green Lifestyle Expert Seminar' yesterday at the Seoul Partners House, located in Hannam-dong, Seoul.

9. A Small Step toward a Greener World, ECO Mileage

January 19, 2010 By JooHee Won, Reporter (jhwon@worldyannews.com)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aid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 in 2007 was 'Green'. And the next word most talked about was 'low carbon green growth'. As we greeting the new year, we also need to go further to get a goal of 'green growth'.

Today, not a single industry can survive without putting 'green growth' into consideration. Due to the restriction of the CO2 emissions, every industry should reduce CO2 emissions in order to sustain the businesses.



'Green growth' has attracted attentions not only from local residents but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It was emphasized when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stressed the importance of business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the Copenhage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stem global warming in late last year. The global warming and its destruc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can be seen in the forms of earthquakes, heavy snows, floods and tsunamis.

Given the fact that this year's unexpected heavy snow was attributed from the global warming, we should raise our public awareness that energy conservation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tter of course. But, above all, to make those who find energy conservation difficult realize the needs for conservation is through boosting the motivation.

'ECO Mileage system' is a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to counter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system allows every household, school, industry automatically to be informed the amount of the energy they use, including electricity and gases, and to promote them to save them. This will ultimately reduce greenhouse gases and offer incentives to low carbon activities.



Citizens can get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their energy usage by putting some basic personal data, such as names and addresses at the ecomileage.seoul.go.kr. This would encourage them to conserve energy and citizens or groups who get eco-mileages by saving energy can get incentives to low carbon activities.

Households that are able to cut back more than 10% of average greenhouse gases for 6 months can have one benefit among three. The benefits are a 'smart voltmeter' that allows a real-time monitoring on the amount of electricity usage and fees, planting trees under the name of themselves or their children and low carbon products. And the top 20 apartment complexes, commercial buildings and religious groups are eligible for reception of 10,000,000 rewards to go green.

Energy diagnosis system can be another benefit. Professional consultants check not only the amount of energy usage of air-conditioning systems, household appliances and lights but also consuming patterns. And then they provide the ways to save energy. They also check whether thermostats and heating control valves have defects. This system (Home Energy Doctor) is also available at the ecomileage.seoul.go.kr.

Nearly 120,000 households were participated in the ECO Mileage system since last September and reduced 19,873 tons of greenhouse gases only for 3 months. This means that if one third of households in Seoul save 10 % of electricity usage, 61.6 billion worth of energy can be saved annually.

To do this, small steps are required. Saving some spaces in the refrigerator, pulling off plugs when not in use, using energy-efficient fluorescent lights and not using elevators up to 4th floor can be good starters.

Another good example to achieve this aim is that people can save one-third of the energy they use for their cell-phones, which is unnecessary used when they overly charge their batteries. This is the same amount of energy that nearly 85,000 European households use annually.

Kim Jong-seo, a Korean rock singer participating the system, wrote and released a song titled 'ECO Mileage song '. Let's do what you can do right now. A saying goes that the fifth energy is conservation. We have to bear in our mind that small but great steps to conserve energy are the first step towar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http://www.worldyannews.com>)

10. Eco-mileage program to be expanded nationwide

September, 12, 2009 Kookmin Ilbo (19p)

국민일보

2009년 09월 12일 자 19면

에코 마일리지 전국에 확산되기를

서울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한 가정·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 마일리지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에코 마일리지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그 실적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해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다. 최근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10%이상 감축하면 스마트 전기계량기, 나무교원권, 에너지 진단 서비스, 저탄소 제품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조치다.

서울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7.5%인 4500만t(2006년 기준)에 달한다. 따라서 에코 마일리지제가 잘 정착되면 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경기 제주 울산 전남 등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탄소 포인트제와 맞물려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너무나 에너지 절약에 몰두하고 있다. 에너지 개발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절약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태양에너지는 개발 비용이 너무 비싸다. 풍력도 에너지 원으로 각광 받지만 전체 에너지원의 1%만 담당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석유 사용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라 부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국제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 G20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지정됐다. 그러나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생활이다. 녹색기술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녹색생활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에너지를 사실상 100% 수입하는 우리로서 이를 10%만 줄여도 한해 10조원 이상 절약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2배다. 4인 가정에서 한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700kg 이상이다. 이제는 에너지 절약이 우리 모두의 생활 모토가 돼야 한다. 에코 마일리지제가 그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English translatio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launch the Eco-mileage program, which provides incentives to households and organizatio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on the 15th. The Eco-mileage is a program which gives 1 Eco-mile for reducing 10g of carbon dioxide, which is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reduction of electricity, water and gas use into CO₂ reductions. If the participants reduce more than 10% of the energy use compared to the average use over the past 2 years, they can enjoy various benefits such as receiving smart electric meter, tree voucher, energy auditing service or getting discounts on low-carbon products. This is a meaningful step toward energy saving.

Seoul's annual greenhouse gas emissions marked 45,000 tons (2006), accounting for 7.5% of national emissions. If the Eco-mileage program proves to be successful,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lowering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rogram is also expected to lead a nationwide energy conservation movement together with the "CO₂ point program" implemented in other local governments such as of Gyeonggi-do, Jeju, Ulsan and Jeollanam-do.

Around the world, countries are emphasizing energy conservation as they have realized that energy saving is more important than energy development. Solar energy, most widely known alternative energy, is too expensive to develop. Wind power is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but its development is too slow as wind accounts for merely 1% of all energy sources. Given that, saving energy and promoting energy efficiency are regarded as a shortcut to lower the use of oil and prevent global warming. This is why energy saving is regarded the '5th energy resource.' According to the report b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conservation can mitigate the occurrence of global warming by one third.

During the G20 Summit, Korea was designated as a leading green growth country. However,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promoting green lifestyle is more important than developing green technologies. I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to develop green technologies, but promoting a green lifestyle can start any time. In fact, Korea imports 100% of its energy hence if we save 10% of the energy, we can save more than 10 trillion wo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capita in Korea double the global average. More than 700kg of CO₂ is emitted from a four-member family a month. Energy saving must become a part of our life and, hopefully, the Eco-mileage gram will lead the movement.

11. Seoul offers more incentives for less CO2

September, 11, 2009, Friday *The Korean Times* (003p, National Section)

THE KOREA TIMES

2009년 09월 11일 금요일 003면 National

Seoul Offers More Incentives for Less CO2

By Kwon Mee-yoo
Staff Reporter

Seoulites can receive monetary incentives of 50,000 won for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through the new Eco-mileage system, officials said Thursday.

Any citizen, corporation or school interested in participation can sign up at <http://ecomileage.seoul.go.kr>. When registered, the program



Seoul Mayor
Oh Se-hoon

automatically calculates the use of electricity, gas and water.

If a household or company successfully reduces carbon dioxide emissions by at least 10 percent for an average of six consecutive months, an incentive worth 50,000 won will be given.

"The program is a follow-up measure for the city's low-carbon and green-growth master plan announced in July," said Kim Young-han of the Green Seoul Bureau. "We will develop the program as a voluntary movement."

Seoul accounts for 7.5 percent of nationwid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re are several types of incentives currently available, and they are given every six

months. First is a voltmeter, proven to be effective in reducing electricity use in other countries.

Participants can invite an energy consultant to find out the best way to save energy in their home, and they can receive discounts when they buy energy-efficient or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The city estimated that a four-person family with average electricity, gas and water usage could earn some 120,000 won per year by participating in the system.

Gangnam was one of the first in the nation to give incentives for saving electricity, gas and water usag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started a carbon point system in July.

meeyoo@koreatimes.co.kr

12. “Save energy and get rewards”

September, 11, 2009, Friday Kookmin Ilbo (008p, National Section)

국민일보

2009년 09월 11일 금요일 008면 사회

“에너지 사용 줄이고 보상 받으세요”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제' 15일부터 시행
1년에 10% 감축면 10만원 상당 인센티브

가정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최근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10%만 줄여도 1년에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인과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 마일리지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코 마일리지제는 가정이나 단체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 실적을 이산화탄소(CO₂) 감축량으로 환산,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다. 감축률이 10% 이상 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이산화탄소 감축량 산정은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해당 월의 평균값) 대비 당월 사용량과의 차이에 탄소배

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6개월 주기로 1년에 2번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계산해 10% 이상 줄이면 스마트 전기계량기, 나무교환경, 에너지친단 서비스, 저탄소제품 할인혜택 등 4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두 5만원 상당이다. 즉 1년 동안 꾸준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감축에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보급돼 있는 스마트 전기계량기는 가정에서 전력사용량 및 요금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가정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유용하다.

나무교환경은 세대주 또는 자녀 명의의 나무를 공파로 준다. 에너지친단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2008년 기준

서비스는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 에너지 사용상태를 진단해주는 것이다. 저탄소제품 할인혜택은 삼성전자 롯데쇼핑 동양매직 효성전기 경동나비엔 LG하우시스에서 친환경제품을 구입할 경우 5만원을 깎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학교, 아파트단지, 상업건물 등 단체의 경우 6개월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 상위권에 들면 20곳씩 총 60곳이 매년 선정돼 녹화조성비 1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에코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주소, 이름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각 가정과 단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마일리지도 자동 적립된다.

서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5%(4500만 t, 2008년 기준)이며 이중 가정이나 상업분야 건물에서 배출하는 양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백준정 기자 min@kmb.co.k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launch 'Eco-mileage program' on September 15th

Receive incentives worth 100,000 won by saving 10% of energy use annually

(English translation) Households can receive incentives worth 100,000 won a year by saving energy use such as electricity, water and gas by 10% compared to the average use of the last two yea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10th, announced that it will launch the Eco-mileage program on September 15th, which offers incentives to individuals or groups wh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Eco-mileage is a program which gives 1 Eco-mile for reducing 10g of CO₂.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reduction will be converted from energy (electricity, water, gas) reductions at households and organizations. If the reduction rate is more than 10%, participants can enjoy various incentives.

Carbon dioxide reduction will be measured by multiplying carbon emission factor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energy use (average energy use of the current month over the past two years) and the energy use of the month.

The emission reductions of households will be checked twice a year, and if a household saved more than 10% of energy use, benefits worth 50,000 won such as smart electricity meter, tree voucher, energy audit service or a discount coupon for low-carbon products will be given. In other words, if the household continuously reduce CO₂ emissions by saving energy use for a year, it can enjoy benefits worth 100,000 won.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The smart electricity meter, which is widely used i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S., is a handy device for households to save energy as it allows users to monitor their electricity use and bills in real-time. Tree voucher gives a free tree with the name tag of the family member. For energy audit service, a professional energy consultant visits the household to analyze the energy consumption pattern. Eco-mileage members who receive the discount coupon can get a 50,000 won discount for purchasing an eco-friendly product at Samsung Electronics, Lotte Shopping, Hyosung Electronics, Kyung Dong Navien and LG Hausys stores.

Every year, schools, apartment complexes and commercial buildings (total 60 organizations, 20 from each sector) which top the list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for the past 6 months will be selected to receive subsidy worth 10 million won for greening projects.

Citizens who want to join the Eco-mileage program can visit the Eco-mileage program website (ecomileage.seoul.go.kr) for registration. Households and organizations can monitor their energy use once they enter basic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ddress, at the website, and the Eco-miles will be given automatically.

The annual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city of Seoul account for 7.5% (45 million ton, as of 2006) of national emissions. Emissions from households and commercial building account for 63% of city emissions.

13. Save electricity, water or gas and get incentives like tree voucher

September, 11, 2009, Friday Seoul Shinmun (026p, Administration Section)

서울신문

2009년 09월 11일 금요일 026면 행정



서울시 'CO₂ 10g당 1마일리지'제 도입

2009년 9월15일, 주부 김선화(34) 씨는 이번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세금 고지서를 확인했다. 사용량은 각각 303kWh, 35㎡, 102㎡. 그는 가정별 에너지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했다.

2010년 3월15일, 주부 김씨는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6개월간 평균 사용량이 2년 평균사용량에 비해 각각 10%씩 줄었다. 그는 에너지 감축에 따라 받게 되는 4가지 혜택 중 공원 등에 이름을 붙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나무교환권'을 골랐다.

전기·수도·가스 절약팬 나무교환권 등 인센티브

● **6개월 평균 10% 이상 절약해야 혜택**
서울시는 가정이나 단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저탄소 제품 등 '친환경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시장에서 6개월 이상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이산화탄소 10g당 1마일리지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가정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00kWh라면 월평균 10%씩 30kWhx6=180kWh를 6개월 동안 줄여야 한다. 이 감축량 180kWh에 전기 탄소배출계수(에너지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인 424그램이산화탄소(gCO₂)를 곱한 7만 7083(gCO₂)이 온실가스 감축량이 되는 것이다.

10g당 1마일리지이기 때문에 이 값을 10으로 나눈 7708이 최종적으로 얻게 된 마일리지다. 여기에 수도와 가스 사용량도 각각 10%씩 6개월간 감축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현금 등 경제적 보상이 아닌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제공해 녹색실천운동을 이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해진 기후변화담당관은 '현금이 아닌 저탄소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일본의 경우도 대중교통 이용권을 주는 '에코 액션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프로젝트

- ▶ 참여대상: 가정, 기업, 학교 등
- ▶ 참여방법: 회원 가입(<http://ecomileage.seoul.go.kr>)
- ▶ 인센티브 제공기준
 - 가정-6개월간 평균 온실가스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0%이상 감축
 - 단체-월2달 연속 상위단체 선정 후 녹색비율 1000만원 지원
- ▶ 인센티브 제공 내역
 - 전력사용량·요금 표시 '스마트 전기계량기'
 - 공원 등에 이름 딴 나무심기 '나무교환권'
 - 전문가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 서비스'
 -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제품 제공·할인'

● **인센티브는 저탄소활동에 재투자**
에코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일반 가정이 6개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근 2년간 평균사용량보다 10% 이상 줄이면 4가지 혜택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전력사용량·요금 표시 '스마트 전기계량기' ▲공원 등에 이름 딴 나무심기 '나무교환권' ▲전문가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제품 제공·할인'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단체의 경우 6개월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상위권인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총 60곳에 녹색조성비 1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에코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려면 우선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량 점검 등이 전부 이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주소나 이름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도 자동 적립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nglish translation)

'1 Eco-mile for 10g of CO₂,'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s the Eco-mileage Program

September 15, 2009: Ms. Kim Sunhwa (34) checks her electricity, water and gas bills for this month, which are 303kWh, 35m³, and 102 m³ respectively. She registers for the Eco-mileage program at the website (<http://ecomileage.seoul.go.kr>), which allows participants to check their energy use regularly.

March 15, 2010: Ms. Kim checks the Eco-mileage website and finds out that she has saved 10% of electricity, water and gas use for 6 months compared to the average use over the last two years. She is eligible to receive an incentive. Among the four incentives offered, Ms. Kim selects the tree voucher which she can get a tree with her family name on it to plant at a park.

- Benefits for saving over 10% of energy for 6 months

On September 10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launch the "Eco-mileage program," which offers eco-friendly gifts to energy saving households or organizations.

The Eco-mileage program offers 1 Eco-mile for reducing 10g of carbon dioxide by converting the energy saving such as electricity, water and gas use over the past 6 months compared to the standard period into CO₂ reductions. For example, if a household uses 300kwh of electricity per month, it should reduce 180kwh for 6 months. (180kwh = 30kwh (10% each month) X 6 months) And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for this household will be 77,803g of CO₂,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reduced energy (180kWh) and carbon emission factors (424g of CO₂ for electricity use). Based on this calculation, the Eco-miles this household can earn will be 7,708 miles as 10g of CO₂ is converted into 1 Eco-mile. In addition to the saving of electricity use, this household can receive incentives if it saves 10% of water and gas use respectively for 6 months. The Eco-mileage program is more meaningful given that it encourages citizens to continue their green lifestyle by providing incentives which can be reinvested in low carbon activities rather than monetary incentives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Chung Hunjae, the Director of Climate Cha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aid that it is a global trend to encourage low carbon activities rather than offering monetary reward. He also explained about the 'Eco Action Point Program' introduced in Japan, which offers public transportation tickets to the participants.

- Incentives are used to reinvest in low carbon activities

If a household saves more than 10% of energy use for six months compared to the average energy use for the last two years, it can choose one of the following four gifts – smart electricity meter showing electricity use and bills; tree voucher to plant a tree with the participant's name tag on it at a park; energy audit service; and a discount or trade coupon for purchasing low carbon, energy-efficient produ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vides 60 organizations such as schools or apartment complexes which top the lis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financial support worth 100 million for promoting greening projects.

Eco-mileage program: Newspaper coverage

Citizens who want to join the Eco-mileage program need to sign up at the Eco-mileage website as all energy monitoring activities are done at the website. When citizens enter the basic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ddress at the website to register for the program, they can check their energy consumption and earn Eco-miles automatically.